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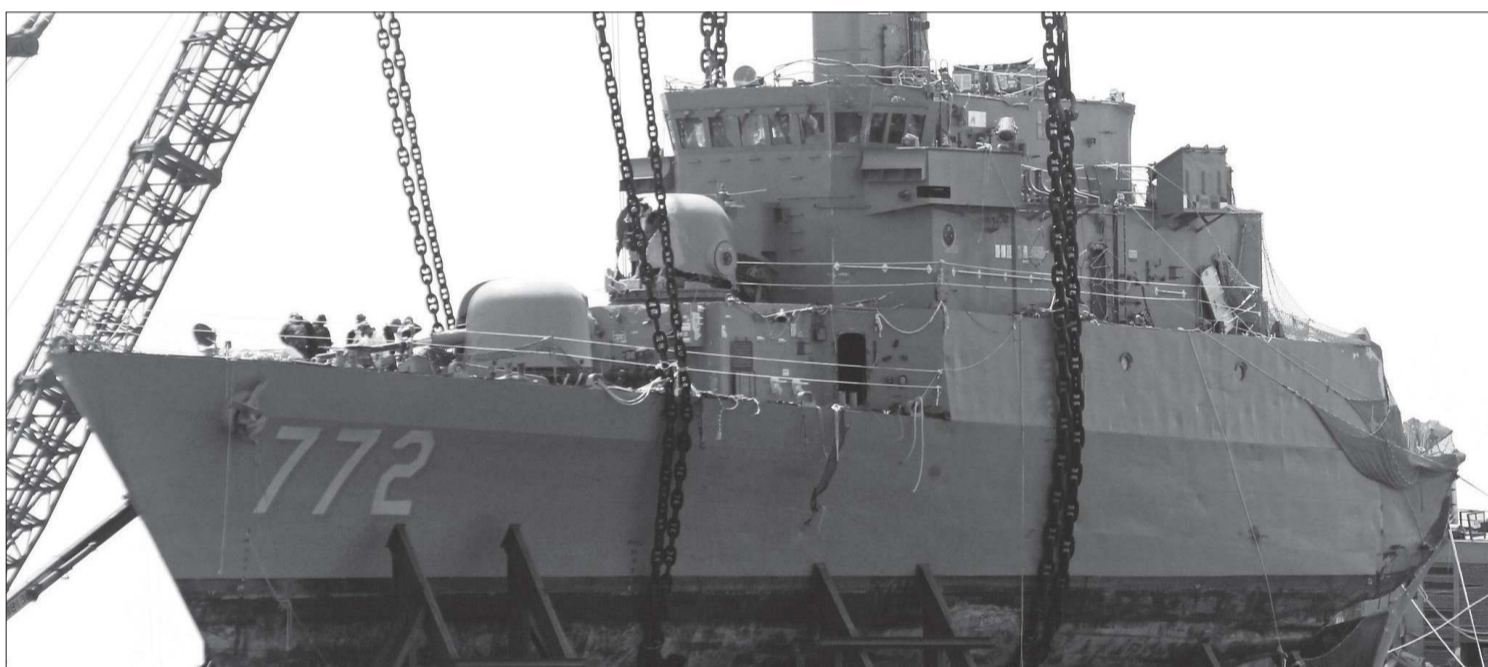
##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되 물러났다.

우파는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는 이래경 이사장이 천안함 희생자를 모욕하고 "왜곡된 반미친중 발언"이나 하는 "음모론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 비명계 정치인들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당 안팎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이재명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며 물러섰다.



### 북한에 의한 폭침?

'천안함 자폭'은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음모론에 가깝다. 이래경 이사장 본인은 6월 7일에 쓴 글에서 "자폭"이 "과잉 표현"이라고 인정했고, 천안함 사건은 "원인 불명"이라고 정정했다.

반면, 우파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한다. 의도적인 규정이나 아니라면 확증편향적 시각이다.

침몰 사고 무려 두 달(2010년 5월 20일) 만에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하지만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도 자신들의 행위라고 인정치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사건 관련 기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거했다는 북한 '1번' 어뢰 부품의 증거 능력에 의문이 있고, 어뢰가 발사됐다는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음을 지

적했다.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에 관한 정부의 말은 이후 "소형 잠수정"이라고 부르는 등 바뀌었다.

이승현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는 어뢰 폭발 때 생기는 거대한 물기둥, 생존자들의 고막 손상 같은 증거가 천안함 사건에서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합동조사단이 내세운 증거는 모두 기껏해야 방증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풀리지 않는 의심들에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내세워 대응했다. 그것이 무슨 증거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 온 전력이 무수하다. 1965년 베트남 전쟁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은 증거를 조작해 전쟁 명분을 만들어 냈다.

우파는 천안함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 왔다. 그러나 좌파는 정부가 증거 불충분 상황을 만들어 놓아 지금까지는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 '북풍'의 경험

그동안 우파 정부와 우파 일반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묵살하고 정부의 결론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윈러댐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에 남북관계에서 대중을 속이고 조작을 서슴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남북 지배자들이 더러운 공모를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총풍 사건'이다. 199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대북 교역사업가 장석중 3인이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 측에 돈을 주고 판문점 총격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996년 총선 직전에 북한

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격을 벌인 일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삼 정부가 북풍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북한 측에 요청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영화 <공작>이 바로 이 일련의 북풍 공작을 다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경찰·국가정보원·군에서 여론 공작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진압 등에서 과잉 진압에 관한 진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한 한국인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주장을 믿지 못하고 각종 음모론과 확증편향이 난무하는 것은 이래경 씨 탓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는

wspaper.org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천안함 사건 원인 논란, 외국인 기사도우미 도입 논란, 1953년 동독 노동자 반란 70년, 우크라이나 전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구속했다.

윤석열이 집회·시위 강경 대응을 지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사회적 대화 노선을 표방해 온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래서 5월 1일 한국노총은 7년 만에 대규모 장외 노동절 집회를 열고, 일방적 노동개악과 노조 무시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을 더 늦추지 않고 5월 하순에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 배제와 한국노총 포섭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그 와중에 한국노총 간부들을 패대기 치고 곤봉을 휘두른 것이다. 당근과 채찍의 서투른 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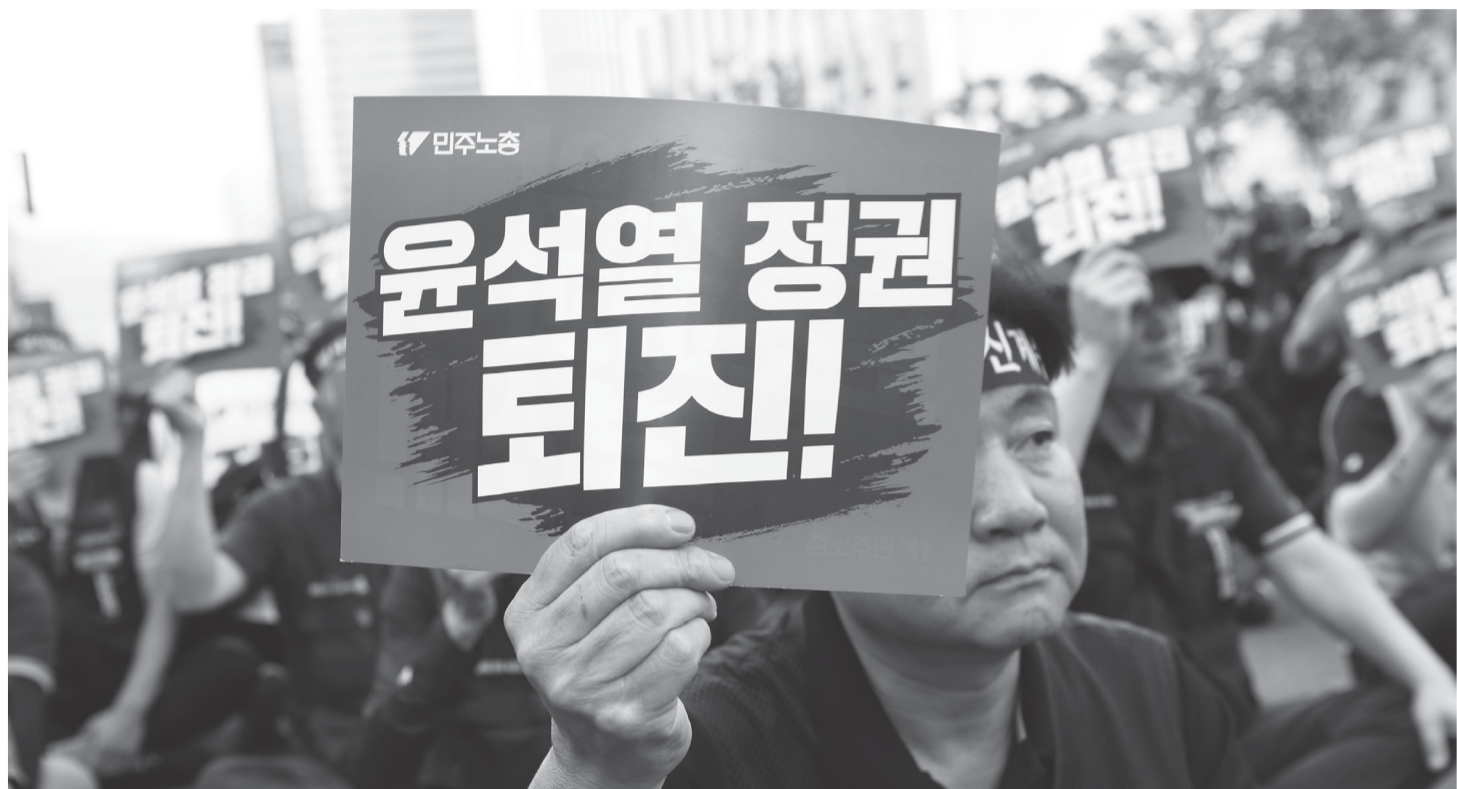
윤석열은 최근 건설노조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1박 2일 파업 건으로만 29명을 기소하고 6월 9일에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 퇴진 찬반 투표를 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노동 탄압에 나선 것은 신경질적이 된 윤석열의 초조함과 다급함을 보여 준다.

## 윤석열식 파트너 고르기

김대중 이래로 역대 정부들은 노동개악을 추진할 때 노사정 타협 방식을 사



용해 온건파 노조 지도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를 포섭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 때는 노동개악 저지 양대 노총 공공부문 투쟁이 도화선이 돼서 거대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한국노총 지도부를 대화 파트너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새로고침노동조합협의회' (이른바 MZ노조)를 띄워 주며 대화 파트너로 삼으려 했으나, MZ노조도 주 69시간 근로제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올 3월 한일 관계 개선에 우선 나서면서, 주69시간제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인기 없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노동개악 요구가 강해서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대화 원천 거부가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통한 대화 파트너 확보 책략이다.

윤석열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식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고, 민주노총 쪽에서는 한석호를 정부 기구에 끌어 들였다. 둘 모두 온건 대화 노선을 대표한다.

동시에, 부패, 간첩 혐의 등으로 소수를 공격해 고립·위축시키면,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져 노동개악에 협조하는 다수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 자기 최면

이런 책략은 윤석열 뜻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지배계급이 계급 세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노조를 때리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우파에게나 노동조합 온건파에게나 자기 최면일 뿐이다. 한국노총 간부들을 공격한 직후 윤석

열 지지율은 떨어졌다. 북한 경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혼선을 빚은 영향이 컸겠지만 말이다.

건설노조 탄압은 양회동 열사 분신과 파업으로 이어져, 압력을 받은 민주노총은 '각계'에 퇴진 운동 연대체를 제안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보건의료노조도 항의 투쟁을 시작했다.

이런 저항들 때문에 윤석열이 최근 신경질적이 돼 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윤석열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운동의 저항이 불충분하거나 정치적 임팩트가 적은 상태가 지속되는 '행운'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경제 악화 속에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사용자들도 필사적이다. 윤석열은 이에 부응하려고 노동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노동계급 일반의 투쟁이 전개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 구독
- ♡ 좋아요
-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기회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II강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6월 14일(수) 오후 8시

발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614-meeting](https://bit.ly/061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